

대학스포츠 07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4. 08. 25.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실시

KUSF 주요 사업

대학스포츠 리그 서포터즈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착수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착수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 상반기 결산

COVER STORY

태릉 · 진천 선수촌 입촌 학생선수 학사지원 사업
우수 학생선수 한국체대 김옥진, 김형규 인터뷰

KUSF 신규 회원대학



대학스포츠 07 표지모델 - 복싱 국가대표 김형규

CONTENTS

Vol. 7



대학스포츠
발행일 2014년 08월 25일
발행인 장호성
발행처 한국대학스포츠총연합의회
TEL 02-707-3767
FAX 02-707-3766
제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TEL 02-511-5799
www.kusf.or.kr



KUSF 주요활동

- 04 대학운동부 (중점육성종목) 지원
- 06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08 「대학운동부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착수
- 09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착수

대학리그

- 10 2014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결산
- 14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 18 2014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KUSF 주요활동

- 22 대학농구리그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 24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 25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6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 활동 마무리
-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 활동 시작
- 27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UnivExpo 참가
- 28 선수촌 입촌 대학 학생선수 학사지원

학생선수 인터뷰

- 30 우수 태극권 국가대표 김옥진
- 32 복싱 국가대표 김형규

KUSF 사무처

- 3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기 임원 선출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신규 집행위원 임명
- 3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신규 회원

KUSF 주요활동

- 36 「2015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
-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 개편
- 37 2014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 38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대학운동부 (중점육성종목) 지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150여 개 대학운동부에 32억 3천만 원 지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대학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중점육성종목(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 종목 중 국내프로리그 활성화 종목을 제외한 종목)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총 32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학스포츠는 초·중·고 학원스포츠의 정점에서 학원스포츠의 방향타 역할을 하며,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 학생선수의 양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또한, 대학스포츠는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주요 자원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2012 런던올림픽에서는 총 메달 57개 중 29개(50.8%)를, 2010 밴쿠버올림픽에서는 총 메달 19개 중 10개(52.6%)를 대학 학생선수가 따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대학은 각종 대학 평가의 압박으로 대학 경영합리화에 힘쓰며 대학운동부를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놓고 있다. 대학운동부 폐지 또는 예산 등 축소, 체육특기자 선발 축소 등 대학 내 대학운동부의 위상이 점점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스포츠가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대학스포츠의 붕괴를 막고자 KUSF가 나섰다. 대학운동부의 운영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학운동부의 육성을 장려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전격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USF 집행위원회 및 경기지원위원회의 지혜를 모아 현재 대학스포츠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학운동부 지원 방안을 고심한 끝에 우선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 종목 중 국내 프로리그 활성화 종목(농구, 배구, 야구, 축구)을 제외한 52개 종목을 100여 개 이상 대학운동부를 대상으로 훈련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의 운영비를 500만 원 ~ 3,000만 원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운동부 육성에 묵묵히 힘쓰는 대학에 고루 지원하고자 대학 당 지원신청 대학운동부 수의 1/2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지원 대상을 KUSF 회원대학뿐 아니라 비회원대학(회원가입 전제)까지 확대하여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을 두루 지원함과 더불어 KUSF 규모 발전도 꾀했다.

65개 대학 151개 대학운동부 최대 3,000만 원 지원

2014년 6월 27일,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공고 후 7월 11일까지 각 시도체육회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했다. 각 시도체육회가 1차 심사를, KUSF가 2차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운동부 재정 여건, 대학운동부 종목 중요도, 대학운동부 구성, 대학운동부 실적 및 심의위원 종합 평가를 두루 심사한 끝에 65개 대학의 151개 대학운동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별 지원 금액은 대학운동부 구성(학생선수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789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총 32억 3천만 원이 골고루 분배됐다. 8월 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운동부별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존재”

각 대학은 각종 대학 평가와 대학 구조조정 등 극심한 외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어려움은 곧 대학운동부의 어려움, 대학스포츠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 학원스포츠와 실업·프로스포츠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학스포츠의 위기는 곧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위기다. 대학스포츠의 중요성, 대학스포츠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체육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이번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 대학운동부 현장의 사기 진작, 대학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대학운동부 육성 장려 등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운동부 육성에 힘쓰고 있는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이번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에 대해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존재”라고 평했다. KUSF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학운동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대학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다.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대학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2014년 6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제: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이예리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안에 따라 대학이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경영합리화 논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운동부의 축소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운동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예리사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학운동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열악한 학원스포츠 현실에서 마땅한 지원도 없이 엘리트선수 육성에 매진,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 발표 이후 각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논리 앞에 다수의 대학운동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운동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강신욱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중앙대 스포츠단장을 맡고 있는 허정훈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나섰다. 허정훈 교수는 발표에서 대학운동부는 학원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가교이자 엘리트스포츠의 중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학운동부의 교육적 순기능을 피력했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과 더불어 대학운동부가 극심

한 재정 압박 등 심각한 축소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대학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스포츠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에 대학운동부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정훈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은 “대학운동부는 그간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TOP 10’의 성적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선수 자원 공급원인 대학스포츠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대학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대학스포츠 관장 조직의 체계화를 제시하며 “대학운동부가 발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종목별 대학연맹을 조직화하고 KUSF, KUSB(대한대학스포츠 위원회)가 연계 및 협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목별 대학연맹체의 통합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국내외 대학스포츠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가 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서희진 교수는 대학구조조정의 여파로 대학 전 계열의 정원감축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운동부가 전향적 역할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대학 내부에서 대학운동부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고, 대학운동부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스포츠경영학과 김동선 교수는 대학운동부별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대학운동부에 대한 대학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학운동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의 NCAA처럼 한국의 KUSF도 학생선수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대 대회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대권도학과 김중현 교수는 현재의 대학평가지표가 예체능 특성화 대학에 불리하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평가 방식은 예체능 특성화 대학 등 특성화 대학의 운영 방향 전환을 야기하며 결국 예체능 인재 양성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대 체육대학장인 스포츠산업학과 조성식 교수는 한국 대학스포츠와 미국 대학스포츠의 환경은 대생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상기시키며 일본 대학스포츠의 형태를 한국 대학스포츠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 주관 대학평가에 대학운동부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점에 있어서도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편적 지표로서의 정당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대학운동부 현장 대학 교수진의 토론 후 정부 부처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체육국장은 문체부의 대학운동부 지원 현황 및 지원 계획을 전했다. 특히 대학스포츠



이예리사 국회의원



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 회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KUSF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박춘란 대학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평가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로 다양한 분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열띤 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부처를 향한 대학스포츠 현장 실무자의 질문과 건의 등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스포츠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학스포츠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의 질적·양적 개선을 고민하는 장이 됐다. 특히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토론회를 찾은 참석자들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일회성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학운동부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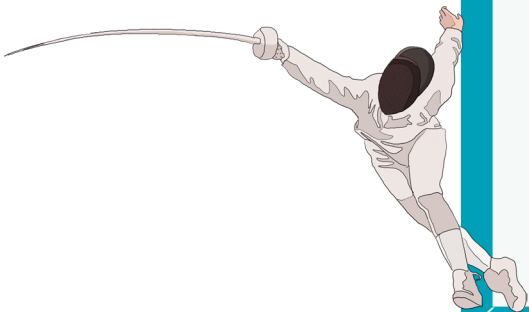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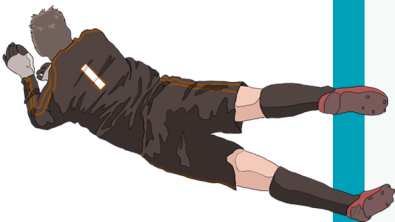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 정상화, 활성화, 선진화를 위해 대학스포츠(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주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스포츠는 각 대학이 처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 대학운동부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스포츠는 엘리트스포츠 자원의

최대 공급원으로 대학스포츠의 위기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KUSF는 대학스포츠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학스포츠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현장 요구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에는 전국대학교체육부(과)장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각 대학이 각종 대학평가에 민감한 상황에서 대학평가 요소에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 지표가 누락되어 대학운동부 예산 축소 등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정부 주관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 지표 추가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에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 지표 추가 의견을 개진하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추가를 위해 KUSF는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책임자: 송재욱 부원장)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 수행기관은 6월 30일 대학운동부 및 대학평가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연구에 돌입했다. 7월 초에는 주요 대학의 대학운동부 및 대학평가 전문가 대상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요소를 도출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정부 주관 대학평가 관련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에 나섰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문위원단은 KUSF 여인성 집행위원(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KUSF 허정훈 집행위원(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조길원 체육정책과 사무관, 한국대학평가원 서민원 원장, 경기대 김선필 평가감사실 과장, 용인대 성낙현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해 현장성과 공신력을 두루 갖추고자 했다.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는 대학운동부 운영 현황과 대학운동부 운영 계획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이는 대학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정책건의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발 후 평가지표 검증을 위한 세미나와 가상평가 등도 실시하려 한다. 이 연구의 중간보고는 9월 초, 최종보고는 11월 말에 진행될 계획이다.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착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KUSF는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정상화, 활성화, 선진화를 이루고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제도 폐지 등 대학스포츠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USF의 이 같은 노력은 비단 대학스포츠뿐 아니라 우리

나라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대학스포츠는 초·중·고 학원스포츠와 실업·프로스포츠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정책과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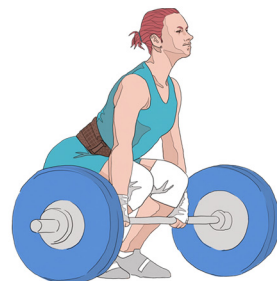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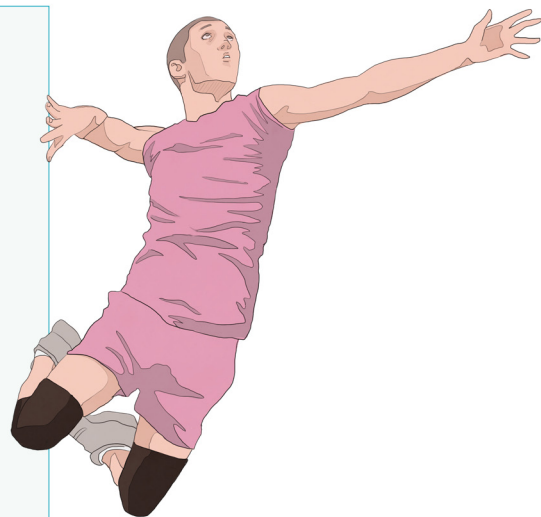
공신력 있는 대학스포츠 기초 자료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올바른 시스템 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의 확보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간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 자료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대학스포츠 운영 현황, 시설 현황 등 운영 실태 자료가 일부 존재하나, 각 대학, 각 종목 협회, 시·도체육회 등에 산재되어 있고, 그나마 통계 수치가 각각 상이한 경우도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신뢰도와 활용도가 떨어졌다.

KUSF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운동부 현황, 대학 학생선수 및 지도자 현황 등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연구」 공모를 통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지난 6월 20일 착수보고에 이어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항목 초안을 개발했다. *대학운동부 운영 형태 *대학운동부 육성 종목 *대학스포츠 시설 현황 *대학운동부 지원(재정) 현황 *대학운동부 지도자 현황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현황 등의 세부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각 대학 체육위원(부·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세부 조사 항목을 보완했다.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며, 8월 중 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11월 말 도출 예정이다.

전국 대학운동부 운영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KUSF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대학스포츠 시스템 정립에 초석이 될 귀중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USF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KUSF가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스포츠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 대학스포츠 비전 수립 시 다각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4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결산

“챔피언십 티켓을 잡아라”

치열한 권역별 경쟁

지난 4월 11일, '2014 카페베네 U리그'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총 77개 팀이 참가하며 이들은 10개 권역으로 나뉘어 10월 10일까지 대장정을 치르고 있다. 1~3권역은 7개 팀, 그리고 4~10권역은 8개 팀으로 편성됐다. 이 중 권역별 상위 3개팀, 총 30개팀에게는 '2014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1권역부터 3권역까지 그리고 4권역부터 10권역까지의 4위 팀 중 각 1위를 차지하는 두 팀은 후발대로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총 32개 팀이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게 된다.

한편, 이번 조 편성은 어느 때 보다 '지역 배정'에 중점을 둔 채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 강팀들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지역의 8개 팀이 속한 4권역은 '죽음의 조'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강호 한 두 팀만이 포진돼 2파전 혹은 3파전을 벌였다. 정신없

이 달렸던 U리그는 6월 20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휴식기에 돌입했으며 작년에 비해 많은 팀들이 '무패'를 기록한 채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1권역
강원, 충북후반기,
챔피언십을 향한 중요한 길목

강원 6개 팀과 충북 1개 팀이 속한 1권역에서 기분 좋은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 한 팀은 상지대였다. 상지대는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있는 이진우와 김종석의 득점력을 앞세워 승점 16점 (5승 1무 2패)을 얻어냈다. 하지만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관동대와 한라대가 나란히 승점 15점, 14점을 기록하며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동대는 총 7경기를 치르는 동안 패한 적이 없다.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는 상지대와 관동대의 선두 경쟁이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중대와 송



2권역 한양대 vs 광운대



3권역 중앙대

호대가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양 팀 모두 상위 팀들과의 승점차가 크지 않아 상위권으로의 도약을 노릴 수 있다. 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활약하는 선수도 있다. 바로 상지영서대의 공격수 김영훈. 김영훈은 7경기에서 4골을 성공시키며 당당히 득점 순위 1위에 올라있지만 팀은 승점 3점 밖에 챙기지 못한 상태이다.

2권역 서울

챔피언십 티켓은 이미 우리의 것! 우승팀을 겨룬다

2권역에서는 서울에 있는 7개의 팀이 만났지만 숭실대, 광운대, 한양대의 3파전이 펼쳐졌다. 이 중 지난해 '제 44회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숭실대는 승점 20점 (6승 2무 0패)으로 선두에 올라 여전히 건재함을 알렸다. 광운대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다. 무려 4명의 선수(김민혁, 유인수, 김민태, 정동수)가 득점 순위 상위권에 자리하면서 시원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숭실대와의 승점 차는 고작 1점 밖에 되지 않으며 광운대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 변동의 가능성은 다분하다. 2권역 3파전의 또 다른 주인공 한양대 역시 5승 0무 2패로 선두 경쟁에 개입하고 있다. 언급한 세 팀 외 나머지 네 팀(세종대, 원광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서울대)은 4위 싸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 '숭, 광, 한' 중 어느 팀이 권역 1위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지, 그들의 소리 없는 전쟁을 지켜보자.

3권역 경기

고장난명 (孤掌難鳴)의 성균관대와 중앙대, 비상하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끝에 어렵게 챔피언십에 진출했던 성균관대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균관대는 국제사이버대와 무승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단독 선두에 올라있다. 노련미를 지닌 9명의 4학년 선수들이 주축을 이뤄 성균관대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같은 권역 2위인 중앙대의 상승세 역시 눈에 띈다. 중앙대는 시즌 초반부터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5승 2무 1패 (승점 17점)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일명 '중앙대 F4'(류승우, 심상민, 이창민, 우주성)가 일찍이 프로 진출에 성공하면서 경기력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위권에는 용인대와 경기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용인대는 승점 11점 (3승 2무 2패), 경기대는 승점 8점 (2승 2무 4패)으로 두 팀의 승점차는 3점이다. 동시에 경기대는 하위권과의 승점차 또한 크지 않다. 결국 경기대는 용인대와의 3위 싸움을 하면서 하위 4개 팀과의 플레이오프 진출 싸움까지 벌여야만 해 갈 길이 바쁘게 됐다.

4권역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고려대의 질주, 그리고 이번의 희생양 연세대

대학축구의 강호들이 한 곳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챔피언십행 티켓은 3장 뿐. 그야말로 매 경기가 '빅매치'였다. 이 속에서 1위 고려대(승점 18점)를 제외한 6위까지의 팀들이 나란히 15점부터 11점까지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가졌는데, 이를 통해 얼마나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축구의 양대 산맥, 고려대와 연세대가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번 시즌 두 팀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렸다. 고려대는 무패행진으로 단독 선두에 오른 반면 연세대는 경희대 전, 동국대 전, 그리고 고려대와의 비정기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고전했다. 경희대, 인천대, 그리고 동국대가 지난 시즌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5위 연세대의 챔피언십 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아주대 또한 뛰어난 득점력의 조주영 (8경기 7득점, 득점 1위)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승점 11점으로 6위에 머물고 있다. 과연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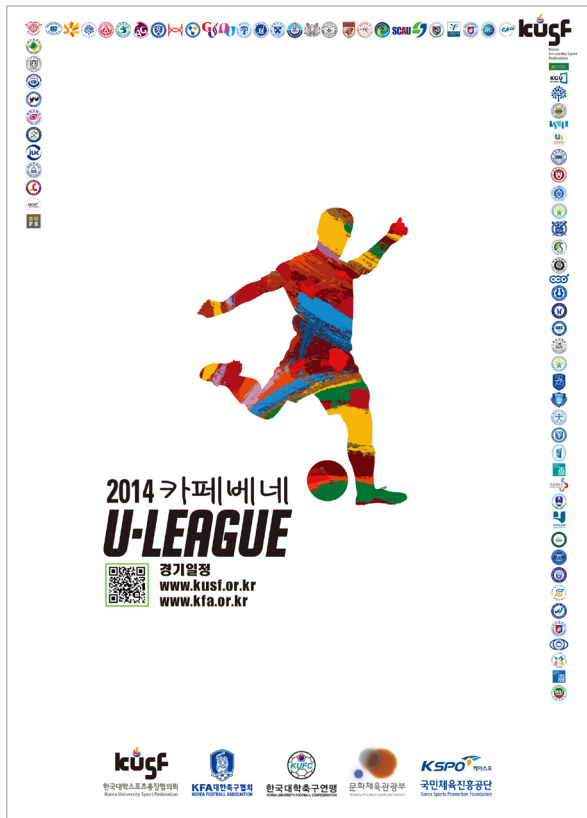
5권역 충남, 충북

홍익대의 저력

이번에는 홍익대, 청주대 그리고 단국대의 3파전이다. 비록



4권역 고려대 vs 동국대



홍익대에 4학년은 골키퍼 이영창 한 명 뿐이지만 10명의 3학년들과 21명의 1, 2학년들이 뽕뽕 뭉쳐 쾌조를 보였다. 7승 2무 (승점 23점)로 전반기를 산뜻하게 마무리 지은 홍익대의 일등 공신은 물 오른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안태현(9경기 7득점)과 강민성(8경기 4득점)이다. 3파전의 나머지 두 주인공은 승점 18점의 청주대와 승점 17점의 단국대이다. 청주대가 9경기를 치르며 5승 3무 1패를 기록했고, 단국대가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후반기 순위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 하지만 8위 충남 글로벌사이버대(0승 3무 6패)를 제외한 중하위권 중원대, 선문대, 충북대, 호서대의 상위권 진입은 힘겨워 보인다. 3위 단국대(5승 2무 1패)와 4위 중원대(2승 3무 4패)의 승점이 8점차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향한 이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6권역
대전, 충북, 전북

**막상막하의 건국 황소군단과
한남 독수리, 과연 승자는?**

선두 안착, 선두 탈환, 그리고 재탈환. 이보다 치열한 경쟁은 없다. 권역 우승을 위한 건국대와 한남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양 팀은 똑같이 '5승 4무 0패' 승점 19점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건국대가 27득점 10실점으로 1위, 한남대는 25득점 8실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어 후반기에도 선두 경쟁이 계속될 예정이다. 양 팀 선수들은 득점 순위에서도 경쟁 중이다. 현재 한남대 조우진이 9경기 8득점으로 1위, 건국대 조석재는 6경기 6득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남대 방찬준과 건국대 김운은 나란히 3위에 올라 있다. 두 팀의 뺏고 뺏기는 접전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중위권 싸움이다. 전주대, 배재대, 호원대가 각각 승점 14점, 13점, 12점으로 챔피언십 진출 티켓을 노리고 있다.

7권역
광주, 전북

**호남대vs우석대,
조선대vs남부대**

4권역이 '수도권'의 죽음의 조였다면 7권역은 '비수도권'의 죽음의 조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중 호남대와 우석대가 후반기 들어 선두경쟁에 더욱 불을 지필 예정이다. 호남대는 개막전이었던 전주기전대와의 경기에서 1대 2로 패한 이래로 승점을 내어준 적이 없으며, 우석대는 무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

다. 호남대가 6승 2무 1패 승점 20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우석대가 5승 4무 0패 승점 19점으로 뒤쫓고 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선대와 남부대의 치열한 접전도 펼쳐지고 있다. 이 두 팀 역시 승점이 1점 차 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7권역의 후반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경기들로 가득 찰 예정이다.

8권역
광주, 전남

**광주대, '무패우승의 맛'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까**

‘제49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의 우승, 그리고 리그 ‘무패우승’의 선두주자. 누구보다 화려한 2013년을 보낸 광주대의 돌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비록 6월 20일에 펼쳐졌던 동강대와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하며 작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나머지 8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승점 25점으로 순항하고 있다. 특히 광주대 이제길이 9경기 12득점을 뽑아 내며 9권역의 영남대 정원진, 그리고 10권역의 동아대 서형승과 함께 전체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들의 득점력을 비교하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초당대와 동신대는 2위, 3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신대 주현우(9경기 8득점)와 초당대 김태훈(8경기 6득점) 역시 득점 순위 2위, 3위에 올랐다.

9권역
경북, 대구, 울산

**바야흐로
영남대의 시대**

지난해 독보적인 1위로 리그를 마무리 지으며 챔피언십 우승까지 차지했던 영남대가 이번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영남대는 ‘2014 하나은행 FA컵’에서 챌린저스리그와 내셔널리그 팀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파란을 일으키며 이제 K리그 클래식 팀과의 8강전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U리그에서는 9승 전승을 거두며 넘볼 수 없는 우승 후보가 되었다. 여기에 유상철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롭게 태어난 울산대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울산대는 대구예대와 영남대에 패하면서 7승 0무 2패, 영남대와 승점 6점 차로 벌어지게 됐다. 3위 다툼에는 대구대와 안동과학대가 나섰다. 양 팀 모두 5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더욱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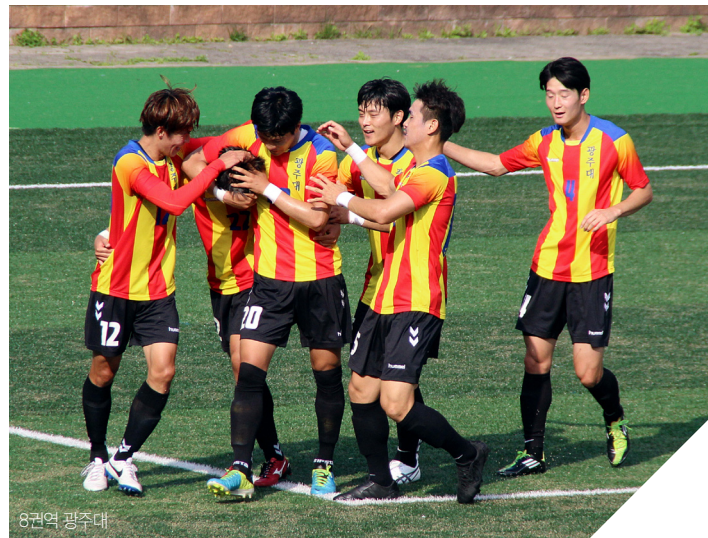
10권역
경남, 부산

**부산의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
동의대vs동아대**

부산의 라이벌 동의대와 동아대의 경기는 10권역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전반기는 동의대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됐다. 9



5권역 단국대 vs 청주대



8권역 광주대

권역 영남대와 마찬가지로 동의대 또한 9경기 전승을 이뤄냈고, 7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동아대보다 승점 5점이 앞선다.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부산 라이벌전에서는 동의대 김양우와 박성환이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하며 동아대를 상대로 2대 0 깔끔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개인 득점 순위에서도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두에 동아대 서형승(9경기 12골)이, 2위에는 동의대 김양우(9경기 9득점)가 자리했으며 3위는 동아대 홍현진(8경기 8득점), 그리고 4위에는 동의대 박성환(7경기 7득점)이 올라있다. 한편, 부경대와 인제대는 모두 4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3위를 다투고 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박수지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고려대 정규리그 전승우승 고려천하는 현재진행형!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3개월간의 대학농구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다. 고려대가 2011년 이승현을 입학시키며 리빌딩을 한 지 어느덧 3년. 2010년 중앙대, 2011년 경희대에 이어 '전승우승'을 달성하며 왕조의 역사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면 '타도 고려대'를 외쳤던 연세대와 경희대는 고려대뿐 아니라 한 수 아래라 여겼던 상대에게 패배를 맞보며 아쉽게 정규리그를 마감했다.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팀도 있다. 지난해 8위로 부진했던 동국대와 무승에 그쳤던 성균관대가 각각 4강 진입과 600여 일 만에 정규리그 승리, 탈꼴찌에 성공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다.

고려대, '전승우승'으로 호랑이에 날개를 달다

고려대는 리그 시작 전 가드진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열린 2014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는, 앞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박재현의 졸업과 이동엽의 부상으로 경기는 승리했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2학년 최성모와 신입생 김낙현의 분발과 김지후, 문성곤의 적극적인 수비가담, 이승현과 이종현의 골밑에서의 활약으로 고려대는 리그 초반부터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시즌 고려대는 4쿼터의 팀이었다. 3월 27일 연세대전, 4월 30일 단국대전 등 3쿼터까지 크게 지고 있거나 팽팽한 경기를 항상 4쿼터에서 승부를 가져오는 뒷심을 보였다. 주전과 후보를 가리지 않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

로 고려대는 6월 17일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27점차로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정규리그 전승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이제 이종현과 이승현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통합우승을 위해 전진하는 고려대다.

예상 외 패배에 발목 잡힌 독수리와 사자 군단

내심 2위보다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두 팀이었다. 하지만 고려대의 압도적인 독주로 일찌감치 4강 직행으로 목표를 전환해야만 했다.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의 마지막 한 자리는 결국 연세대가 차지했다. 주전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두터운 가드진과 4관왕에 빛나는 김준일의 골밑에서의 존재감은 강한 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고려대와의 홈경기에서 3쿼터까지 20점차를 리드하던 연세대는 4쿼터에 믿기지 않는 역전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또 다시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1위 등극은 멀어져만 갔다. 2위라는 성적을 뒤로 하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대표팀과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과 허웅을 필두로 고려대라는 큰 산을 넘어 과연 우승을 쟁취할 수 있을까?


경희대는 아쉬움과 미래의 기대가 함께 한 시즌이었다. 개


막 전 '경희대 3인방'의 졸업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이제 4강권 전력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등 수모를 겪어야 했던 경희대. 예상과는 다르게 2월 MBC배에서 고려대와 한 점차 승부를 펼치며 좋은 모습을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고려대와 연세대를 넘지 못하고, 한 수 아래의 단국대와 건국대에 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결국 6월 19일 연세대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치열한 연장접전 끝에 89-86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3위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새로운 에이스 한희원과 야전사령관 최창진, 배수용과 김철욱의 강력한 포스트가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고 있기에, 여전히 연세대와 고려대 못지않은 우승후보로 평가받기 충분하다.

4계단 수직 상승! 트리플 포스트의 위용을 뽐낸 동국대

지난해 동국대는 석종태와 서민수의 부상으로 제대로 된 전력을 가용하지 못하며 8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올해 트리플 포스트가 제대로 가동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석종태, 서민수, 이대현으로 구축된 골밑은 동국대를 4위로 이끌며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이번 시즌 10승 6패를 기록한 동국대는 이길 상대를 확실히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명지








2014 KB 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경기일정
www.kusf.or.kr
www.kubf.or.kr

주최




한국대학교스포츠총연합회
Korean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주관




한국대학농구연맹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후원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대와의 4월 28일 원정경기에서 2쿼터까지 앞서다 3, 4쿼터에서 급격히 무너진 일이 있었다. 당시 명지대는 에이스 김수찬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이다. 절치부심하여 플레이오프에서는 더욱 집중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절반의 성공,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한양대는 기복 있는 플레이로 당초 예상목표였던 4강 진입에 실패하며 5위로 리그를 마무리했다. 강호 경희대와의 개막전에서 연장접전 끝에 아깝게 패했지만 이재도, 오창환 등 지난해 주전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날려버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위기는 그 다음부터 찾아왔다. 리그 중반 임형종과 한상혁 등 부상으로 인한 주전들의 공백을 다른 선수들이 메우지 못하면서 패배가 쌓였다. 두터워진 중위권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멀어져 갔다. 다시금 정신을 차린 한양대는 정효근의 에이스 본능, 최원혁의 전진후 활약과 더불어 고동현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헌신적인 플레이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특유의 속공농구와 함께 슈터 이동엽, 골밑에서 한준영과 윤성원이 세트플레이에서 주전들의 뒤를 받쳐준다면 4강 이상의 성적은 꿈이 아니다.

건국대, 리그를 휩쓸었던 돌풍의 핵

건국대는 지난해와 달라진 팀 색깔로 6강의 문을 두드렸다. 철저한 가드 중심의 농구에서 유영환, 김진유 중심의 포워드농구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확실한 센터가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황준삼 감독의 적재적소의 전술과 한 발 더 뛰는 농구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수비로 높이의 부재를 극복했다. 한때 동국대와 한양대와의 홈·원정 총 4경기에 모두 패하면서 6강 진출에 먹구름이 짙었다. 건국대의 농구는 그 때부터 진가를 드러냈다. 거함 경희대와 연세대를 차례로 꺾어내며 최고의 이변을 만들어냈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돌격대장 김진유를 필두로 공격적인 면에서 좀 더 날카로워진다면 또 한 번의 이변이 플레이오프에서 연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가드 듀오인 이승환, 박민혁 4학년의 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터워진 중위권의 희생양, 상명대와 중앙대

지난해 6강의 고비에서 희비가 갈렸던 상명대와 중앙대는 올해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서로 위로를 나누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중앙대와의 승자승 원칙으로 6강 막차를 탔던 상명대의 승수는 7승. 올해 공동 5위인 한양대와 건국대의 승수는 9승으로 6강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상명대는 새로 꾸려진 류

지석·이현석·정성우 트리오를 앞세워 8승 8패 5할 승률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최종전 한양대와의 일전에서 대패하며 2연속 6강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비록 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이제 아무도 상명대를 약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다.

중앙대는 이우정·김국찬 등 야심차게 영입한 신입생들과 박철호·이호현 등 4학년들과의 좋은 호흡을 기대하며 명가 부활을 외쳤다. 꿈은 산산조각 깨졌다. 포인트가드 이우정이 부상으로 조기에 시즌 아웃됐고 시즌 초반 활약으로 전성현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국찬 또한 부상으로 주저앉았다. 남은 두 4학년 에이스들이 힘을 냈지만 가중된 부담감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10패 중 상명대에게 2패, 성균관대에게 패배를 당한 점이 너무나 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진의 터널을 걷고 있는 중앙대다.

변함없는 하위권, 그러나 실속을 행진 명지대와 단국대

명지대는 국가대표 감독 출신 김남기 감독의 영입과 김진성·김수찬·김준성·배강률으로 이루어진 4학년들의 노련





미, 그리고 홍콩 청소년대표 출신 초우진완의 공격력이 어우러져 지난해 9위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기대됐다. 김수찬과 김준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명지대의 저력은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3점슈터 김효순의 깜짝 활약으로 한양대와 동국대를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전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6연패로 맥을 추지 못하다가 2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지난해와 순위는 같지만 강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초우진완과 김효순의 발견은 명지대에게 큰 수확이다.

단국대는 득점왕 신재호의 프로 진출로 확실한 득점원의 부재가 우려됐지만 MBC배 대회부터 박찬영이 맹활약하며 그 우려를 불식시켰다. 여기에서 신입생 홍순규의 초기적응은 고질병이었던 높이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는 선수들의 활약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베스트5중 한 명이 활약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부진한 식으로 패가 쌓이면서 어느덧 10연패가

되었다. 반전은 예기치 못한 때 찾아왔다. 베스트5의 고른 활약으로 2위 싸움을 하던 경희대를 잡은데 이어서 최승훈의 결승골로 한양대까지 꺾으며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3승 13패로 리그를 마무리한 단국대지만 3승의 무게는 어느 때와 달랐다. 선수 개인적으로도 하도현이 리바운드왕, 최승훈이 3점슛왕에 등극하면서 실속을 단단히 채긴 한 해였던 단국대였다.

설움은 이제 그만, 탈꼴찌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올해 4승 12패로 10위로 마무리했다. 무승에 그치며 최하위로 마무리했던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의 4승은 성균관대에게 대단한 성적이다. 임준수, 조한수의 프로진출로 얹어진 선수층으로 인해 전력이 더욱 약화됐다고 평가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새로 부임한 김상준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이 이뿔뿔 뭉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첫 승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삭발투혼으로 나선 4월 15일 명지대전에서 시종일관 상대를 앞서면서 감격적인 첫 승을 거뒀다. 2012년 9월 3일 조선대 전 승리 이후 590일만의 승리였다. 그 이후로도 배재광, 김만중의 활약을 바탕으로 단국대, 중앙대, 조선대를 차례로 꺾어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를 몸소 보여준 이들의 플레이는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화로 남게 될 것이다.

조선대, 좌절은 없다

조선대는 지난해 3승 13패로 탈꼴찌에 성공했지만 올해 1승 15패로 다시 최하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1승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4월 15일 단국대학교의 접전 끝에 얻은 승리였다. 이번에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말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선수들은 무력무력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얇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캡틴 박여호수아를 비롯해 김동희, 이호연을 중심으로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이 빚어낼 반전드라마가 언젠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8월 25일 6강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된 6개 팀이다. 플레이오프 특성상 단기전이기에 때문에 흐름이 중요하다. 정규리그의 순위는 무의미하다. 패기와 열정의 결정체인 대학선수들이 만들어낼 명승부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민수, 이규호

2014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홍익대 마지막에 웃다



4월부터 시작된 2014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정규리그가 3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특히 리그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한치 앞을 기늠할 수 없는 순위 쟁탈전이 이어졌다. 리그 마지막 날까지 상위권에서는 1·2위와 3·4위, 중위권에서는 6강 진입을 놓고 순위 다툼이 치열했고 하위권에서는 서로 리그 최하위의 자리를 떠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리그 내 총 11개 팀이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돌아보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소리 없는 승부사 홍익대

홍익대는 리그 시작과 동시에 인하대에게 패하며 순위경쟁에서 밀리는 듯 했다. 하지만 1패 이후 계속해 연승을 이어나가며 1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다. 인하대 역시 리그 중반 성균관대전에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고 홍익대에 승점 1점이 밀

리며 2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성균관대는 리그 전반기 무실세트의 저력을 보이며 1위 자리를 굳히는가 했지만 홍익대, 중부대에게 연패를 당하며 3위까지 밀려났다. 한양대 역시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순위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4위에 랭크되었다.

이번 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팀은 단연 1위로 리그를 마무리 지은 홍익대다. 홍익대는 리그 첫 경기였던 인하대전에서 첫 패배를 기록한 이후 내리 9연승을 달렸다. 3대0의 셋아웃 승리 역시 리그에서 가장 많은 7번을 챙기며 세트 득실률(4.00) 관리 또한 철저했다. 이러한 선전에는 홍익대만의 조직력이 큰 힘을 보탤었다. 홍익대는 1학년 루키 김형진이 대학리그 데뷔와 동시에 주전세터 자리를 맡았고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안정된 경기운영을 보여줬다. 그 덕분에 홍익대의 양

날개인 김재권과 김준영의 공격라인까지 완벽히 살아날 수 있었다. 홍익대는 특정 학년에 의존하지 않는 라인업으로 친구 조화를 잘 이루어냈다. 박종찬 감독과의 새로운 만남이 홍익대를 180도 바꿨다.

춘계대회 우승팀인 인하대는 끝내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하고 2위로 리그를 마감했다. 홍익대와 함께 9승 1패를 기록했지만 인하대는 무실세트 승리가 드물었다. 리그 내내 총 12개의 세트를 내주며 3위인 성균관대(3.25)와 비교했을 때도 2.33으로 세트 득실률이 현저히 낮은 모습이다. 승점 1점이 뒤지며 홍익대에 리그 1위 자리를 내준 인하대로서는 아쉽게 그지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하대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했다. 바로 루키 김성민이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1학년 김성민은 나경복을 도와 맹공을 펼치며 대학리그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부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함께 주장 박원빈이 지난해에 이어 압도적인 성적으로 블로킹 1위, 나경복이 득점 2위·서브 2위에 오르는 등 주요 선수들이 본인의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춘계대회 우승과 함께 리그 연승으로부터 얻어낸 자신감 덕분일까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져 돌아온 강호 인하대다.

이번 리그에서 가장 극적인 순위 변동을 겪은 팀은 3위 성균관대다. 성균관대는 단 하나의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리그 운영을 선보이며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하지만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연승이 끊긴 성균관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레프트 이시우의 부진이 겹치며 아쉽게 두게임을 놓쳤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이 시간을 통해 센터진과 다른 공격수들이 보다 똘똘 뭉치며 이전보다 더욱 큰 무기를 찾아낸 모습이다. 특히 이시우가 수비 부문에서 큰 성장을 보이며 공격, 수비, 서브 모든 부문에서 살뜰히 활약해 2학년임에도 팀의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라이트 김병욱 역시 폭발적인 공격력을 펼치며 팀의 공격을 탄탄히 이끌었다. 성균관대 역시 새로운 수장 김상우 감독의 영입으로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공격보다는 수비, 기본기에 힘을 실은 훈련을 통해 팀의 조직력이 한 단계 성장했다. 비록 예선리그는 3위로 마무리 했지만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에너지를 가진 팀이다.

한양대는 리그 초반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며 거침없는 돌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중반기 중부대, 인하대, 홍익대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로부터 연패를 당하며 순식간에 순위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하위 팀들에게는 모두 승리를 따냈지만 경기대를 제외한 6강에 든 상위권과의 경쟁에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한 점이 한양대가 4위까지 밀려난 이유다. 한양대는 전병선,

박민범, 권진호로 이어지는 다양한 공격카드를 세트 이승원이 고르게 활용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크게 눈에 띄는 공격수들이 아님에도 이들을 영리하게 이용하며 안정적인 운영과 동시에 예측 불가한 토스웍으로 상대 블로커를 손쉽게 속이는 그다. 비록 시즌 마지막 3위 자리를 놓고 펼쳐진 성균관대전에서는 불안한 서브리시브로 공격 역시 원활히 풀리지 않았지만 조직력을 이끌어낸 세트플레이를 살려 낸다면 리그 초반의 모습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

기사화생한 전통강호 경기대학교! 2부대의 저력, 중부대학교

경기대는 리그 초반 3인방(이민규, 송명근, 송희채)의 부재에 주전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치며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안우재의 복귀와 함께 정동근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가파르기로 5위 자리를 지켜냈다. '즐기는 배구'를 팀 컬러로 내세우며 착실히 훈련에 매진한 2부대 출신의 중부대 역시 6강안에 이름을 올리며 그 눈부신 성장세를 톡톡히 자랑하고 있다. 조선대와 명지대 역시 팀의 주포들을 내세워 각각 4승을 올렸지만 6강 안에 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역력했다.

전통 강호 경기대는 리그 개막과 동시에 3연패의 수렁에 빠

지며 대학배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역시 그들의 명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재빠르게 선수들을 추스르며 리그 후반기 1위인 홍익대전을 제외하고는 전승을 거둔 것. 6강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내 연승으로 기세가 올랐던 중부대를 상대로 셋아웃 승리를 따내며 5위 자리를 확정짓고 다시 팀 분위기를 매만졌다. 경기대의 경우 세터 이민욱의 폭발적인 성장이 눈에 띈다. 올해 2학년인 그는 형인 이민규로부터 경기대 주전 세터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형의 그늘에 가려졌던 지난 시간을 깨끗이 벗어던지고 보란 듯이 세트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경기대 역시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정동근(서브 1위), 박대웅(블로킹 2위) 등 개별 기량이 뛰어난 스타플레이어가 많은 점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 부상선수들이 속속들이 코트로 되돌아와 맹활약하고 있어 이전의 강한 모습을 되찾은 경기대다.

2부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6강에 이름을 올린 팀은 중부대다. 중부대는 평소 ‘즐거는 배구’를 강조하며 자유롭지만 질서 있는 팀 분위기를 자랑한다. 타 대학 선수들이 중부대를 ‘운동하기 좋은 학교’로 꼽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번 시즌 중부대는 특히 홈에서만 4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인하대를 풀세트 점전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성균관대의 9연승을 저지하기도 하며 고춧가루 부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게임에서 의외의 선전을 보인 것은 중부대가 6위를 차지하는데 큰 힘이 됐다. 중부대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주포 지원우가 있다. 지원우는 이번 시즌 총 10경기에서 259점을 뽑아냈다. 지난해 성적인 289

득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리그 내 압도적인 득점 1위다. 그리고 이에는 세터 김동훈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김동훈은 182cm의 단신 세터인데다 이제 막 주전으로 뛰게 된 3학년생이지만 여느 대학의 주전세터에 밀리지 않는 재치와 능력을 갖췄다. 학교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하나로 힘을 모아낸 중부대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조선대와 명지대는 마지막 1승의 조각을 채워 넣지 못하고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양 팀 모두 리그 4승을 거두며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했지만 본인들 스스로의 한계를 깨지 못했다. 조선대는 이준영과 구민재, 명지대는 기동균과 이동석으로 든든한 공격라인을 구성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해줄 세터의 부재가 아쉬웠다. 조선대는 조철희와 정주형이 번갈아 가며 세터로 기용되었고 명지대 역시 정명도와 조황현이 돌아가며 운영을 맡았지만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다. 특히 명지대의 경우 셋아웃 패배가 많았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기에 들어서는 한 게임당 한 세트씩을 꼭 챙겨가며 조금씩의 가능성을 보였다. 가까스로 6강에 들었던 작년을 떠올린다면 6강의 문턱에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빠져나올 수 없는 연패의 늪, 리그 최하위만은 안돼

리그 내 연패의 깊은 늪에 빠져버린 경희대와 충남대, 경남과기대는 ‘리그 최하위’라는 폭탄을 서로에게 떠밀었다. 각각 나란히 6연패, 8연패, 7연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



패를 끊어낸 것은 경희대학교였다. 경남과기대를 상대로 6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것. 리그 후반기 세 팀은 나란히 경기를 가졌다. 경희대와 충남대는 경남과기대를 상대로 연패를 끊는데 성공했지만 경남과기대는 리그 마지막까지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다.

경희대는 김현우와 진성태 등 수준급의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끈끈한 팀워크의 부재였다. 경희대 역시 리그 내내 주전 세터 자리를 놓고 추도빈과 이희윤 사이에서 계속되는 저울질을 했다. 때문에 안정적인 리그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범실 역시 셀 수 없이 많았다. 공격력이 좋았던 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범실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이 경희대가 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원인이었다. ‘팀’을 위한 경기보다는 ‘나’만 존재했던 경희대는 앞으로도 고칠 부분이 많은 팀 중 하나다.

충남대 역시 리그 내내 그들만의 조직력을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활약했던 강현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고 김내래 역시 아직은 범실이 많아 확실한 득점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 했다. 충남대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오히려 수준급의 수비능력을 갖춘 리베로 신희섭과 강력하게 속공을 내리쬠는 중앙의 김지훈이었다. 하지만 충남대 역시 리시브와 토스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본인들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경남과기대는 지난해 창단멤버이자 2013 전국체전 금메달 멤버인 정민수, 용동국, 정영호가 모두 프로에 진출하며 전력

에 큰 누수를 입었다. 이에 공격을 확실히 책임져줄 대체 공격수를 찾지 못하며 부족한 공격카드로 고전했다. 충남대와외 풀세트 접전에서 아쉽게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승점 1점만을 획득하는데 만족해야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보였다. 이제는 확실히 리베로로 자리를 잡은 최돈선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시즌 역시 리시브 5위, 디그 3위를 기록하며 팀의 기반을 잡았다. 이에 신입 루키 표현우 역시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지만 그만의 점프와 탄력을 살린 공격을 뽐내며 팀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전력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시급한 경남과기대다.

2014 대학배구리그 최강자는 누구?

거침없이 달려온 2014 대학배구 정규리그는 마무리가 지어졌다. 8월말이면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진다.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8월 22일에 예정된 6강전에서는 각각 예선 4위인 한양대와 6위 중부대, 3위인 성균관대와 5위인 경기대가 맞붙을 예정이다. 토너먼트제로 치러질 챔피언 결정전에서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예선리그를 통해 1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가 정해졌지만 그 숫자들 역시 이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단단히 승리를 챙기며 우승을 향해 달려갈 대학배구팀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마음속에 ‘나의 2014 대학배구리그 최강자’를 담아보길 바란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서다영



대학농구리그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올해 2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이하 KUBF)은 대학농구리그 활성화를 위해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지난 시즌,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를 운영하며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4개 대학의 「대학농구리그 대학생 참여 마케팅 홍보 활동」을 지원한 바 있는 KUSF와 KUBF는 이번 시즌 대학농구리그 후원사 KB국민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학농구리그 참여 전 대학인 12개 대학의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 참가하는 12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의 서포터즈는 대학별 최대 15인, 총 149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3월 15일 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발대식 및 워크숍을 시작으로 KUSF, KUBF, IB월드와이드의 지원 아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포터즈 활약 덕분에 대학농구리그 관중 평균 150% 증가

12개 대학의 서포터즈는 각 대학의 대학농구리그 홈경기 재학생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방향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현장에서 경기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맡아 하는 등 대학농구리그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큰 역할을 해냈다. 특히,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경기장을 한 번 찾은 관중이 두, 세 번 더 찾게끔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대학농구리그 관중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12개 대학의 서포터즈 자체 분석 결과 2013시즌 평균 관중 대비 2014시즌 평균 관중이 약 150% 정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1일 천안에서 열린 상명대와 단국대의 경기, 일명 '천안 дер비'에는 무려 2,230명의 관중이 찾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포터즈, 대학농구리그 올스타전에서도 맹활약

6월 14일 연세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4 KB국민은행 올스타전에서 활약도 두드러졌다. 각 대학의 서포터즈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올스타전 이벤트를 기획했고, 올스타전 경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도맡아 했다. 이날 진행된 이벤트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농구리그 팬들이 선수들에게 응원 문구를 적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가 하면, 경기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복불복 박스슥, 미션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퓨처스팀과 영스타팀의 서포터즈가 직접 줄다리기 대결을 벌이는 등 팬, 선수, 서포터즈가 함께 즐기는 올스타전의 취지를 빛냈다.

대학농구리그 서포터즈, 대학스포츠 서포터즈의 도화선

대학농구리그에서 시작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재 대학배구리그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KUSF는 앞으로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스포츠를 대학생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고 있다. 노련함과 세련됨에서는 전문 마케터를 따라갈 수 없겠지만, 서포터즈는 대학생만의 재치와 패기로 대학농구리그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다. 대학스포츠 판도에 새 바람을 몰고 온 대학농구리그 서포터즈의 꾸준한 활약이 기대된다.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건국대학교 헬쿠(HulKU)

‘황소군단’ 건국대 서포터즈 헬쿠(HulKU)는 캐릭터 헬크와 건국대의 KU의 합성어다. 건국대는 충주에 위치한 글로벌캠퍼스에서 홈경기를 벌이고 있다. 헬쿠는 이 점을 활용해 인근 지역 아동 센터 및 복지 시설을 방문해 관중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학스포츠가 지역 사회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경희대학교 덩쿠(DunKHU)

경희대 서포터즈는 덩크슛의 짜릿함을 농구부, 학우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덩쿠(DunKHU)’라 이름 붙였다. 덩쿠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며 대학농구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으며, 특히 대학농구 전용 팟캐스트인 ‘Sportsnext’와 협력 관계를 맺어 경희대 농구부만이 아닌 대학농구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덩쿠의 활발한 활동은 대학농구와 팬 사이의 친밀감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BBC

고려대 서포터즈 BBC(Back to Back Champion)는 고려대 농구부의 2년 연속 우승을 기원하며 지은 이름이다. 이들은 고려대와 경희대의 대학농구리그 개막전에서 암벽등반선수 김자인의 이색 시투를 기획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진진TV’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단국대학교 단단

단국대 서포터즈 ‘단단’은 ‘단디해라(‘제대로 해라’는 경상도 사투리) 단국대’의 줄임말이자, ‘서포터즈 활동을 단단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단국대 농구부의 성적은 비교적 저조하지만, 서포터즈의 홍보 활동은 이름 그대로 ‘단단’하다. 특히 상명대와의 ‘천안 더비’에는 원정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2배인 약 1,000명의 관객이 단국대 농구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을 정도였다.

동국대학교 동국지원단

동국대 서포터즈는 ‘지원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생들에게 고전적이고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 이미지를 어필했다. 경사도가 많은 캠퍼스 구조를 활용한 배너 광고로 동국대 농구부와 경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 경기 시작 전과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명지대학교 LTE-M

‘Lovely Talented Elite Myungji’라는 뜻을 지닌 ‘LTE-M’은 다른 서포터즈들에 비해 적은 인원(9명)이 활동하지만 모든 이가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명지대 농구부의 적극적인 격려, 협조가 더해지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됐다. LTE-M은 이러한 감독, 선수, 서포터즈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토대로 활동성과를 내고 있다.

상명대학교 SMASH

상명대 서포터즈 ‘SMASH’는 ‘강팀에게 쉽게 지지 않겠다’는 뜻과 ‘서포터즈 활동에 닥쳐올 고난과 역경을 이기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2,230명의 관중을 불러 모으며 농구팬들을 놀라게 한 단국대와 경기, 일명 ‘천안 더비’, ‘호수쟁탈전’의 성공에는 SMASH의 공이 컸다. 시투 이벤트, 학군단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직접 준비해 선보였고 이는 프로농구 못지않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농구의 날’ 행사 개최 등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상명대 농구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Bottom.S.Up!

‘Bottom.S.Up!’은 지난 몇 년간 침체됐던 성균관대 농구부를 응원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중간의 대문자 ‘S’가 성균관대를 의미하고 있다. 성균관대 서포터즈는 농구부가 작년 정규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탓에 홍보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균관’이라는 학교만의 특색을 살려 한복을 입은 마스코트 ‘성이’, ‘균이’를 경기장에서 선보이고, 온라인에서는 ‘농스패치’라는 이름을 아래 선수단의 이색 소식을 전하는 등 ‘Bottom.S.Up!’만의 색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Plan-B(Planning Basketball)

연세대 서포터즈 Plan-B는 지난 시즌부터 장내 아나운서와 마스코트 활동을 벌이고 ‘매치데이’라는 소식지를 제작하며 대학농구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대학농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가 12개 팀으로 출범하는 데에는 Plan-B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2년차 팀답게 본질적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선수단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 ‘매치데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대학교 고!(Go) 조선!(Chosun)

앞으로 간다는 의미와 조선대 농구부의 부리가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고!(Go) 조선!(Chosun)’의 활동은 다소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결코 다른 서포터즈에 밀리지 않았다. 지난 시즌 많아야 100여 명의 관중과 함께했던 홈경기에 올해는 평균 300여 명의 관중이 찾아오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다른 학교와 달리 광주에 위치한 것이 조선대 서포터즈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점을 특성화해 사투리 응원을 진행하는 등의 재치를 선보이고 있다.

중앙대학교 파란

‘파란’색은 중앙대의 상징이다. 중앙대 서포터즈는 이 파란색으로 홈 경기장을 파랗게 물들이자는 의미를 더해 팀 이름을 지었다. ‘파란’은 프로에 진출한 중앙대 출신 스타플레이어의 인터뷰 영상을 다수 제작하며 농구팬들의 관심을 중앙대 농구부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Hy-Five

‘Hy-Five’에는 코트에 나서는 선수 5명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앞글자인 ‘Hy’는 한양(HanYang)에서 따온 것이다. 이미 2012년부터 ‘롭스’라는 이름으로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만큼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강점이 있다. 경기마다 재치 있는 개치프레이즈와 팬들을 위한 자체 티셔츠를 제작하는 등 Hy-Five는 다년간 쌓인 노하우를 선보이고 있다.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대학농구리그에 이어 대학배구리그에도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가 탄생했다. 지난 4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대학배구리그 참가 11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경기대,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부대, 한양대)이 서포터즈에 지원, 최종 선발됐다. 총 92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대학배구리그 홍보에 나섰다.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 대학배구리그 팬 확보에 큰 역할

지난해까지 대학배구리그는 온라인에서의 공식 홍보 활동이 전혀 없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서포터즈의 활발한 홍보 활동에 힘입어 다수의 대학배구리그 팬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각 대학 서포터즈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사진, 영상,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대학배구리그 소식에 목말라했던 팬들에게 단비를 선사했다.

홍보 활동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다. 각 대학 서포터즈는 대학배구리그 홈경기마다 특성에 맞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교내 대학배구리그 홍보전을 펼쳤으며, 경기장 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관심을 불러 모았다. 교내에 대학배구리그 홍보 부스를 설치해 경기 시간 외에도 이벤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경기대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기대요'

올해 대학배구리그의 열기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그 중심에는 대학배구리그 경기대학교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기대요'가 있었다.

그들의 분위기는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다. 서포터즈 지원 마감 이틀 전에 팀원 10명을 갑작스럽게 모았지만, 첫 회의에서 '기대요'라는 팀명을 짓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각자 역할을 도맡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팀워크가 좋아서일까. '기대요'는 매 홈경기마다 새로운 콘셉트로 다양한 이벤트를 꾸리며 선수와 팬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홈경기 평균 관중 수가 2013년 50명에서 2014년 210명으로 약 320%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포터즈의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기본적인 경기 일정, 경기 결과,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게재하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경기대 배구부의 소식을 전달했다. 경기대 배구부 소속 호수별 영상 인터뷰를 진행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선수들의 모습을 전해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며 경기대 배구부 홍보에 힘을 보탰다.

'기대요'는 "크게는 대학배구리그의 발전을 위해, 작게는 대학배구리그에 참여하는 경기대 배구부 홍보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리그와 서포터즈 활동 기간이 끝나도 대학배구리그와 경기대 배구부 홍보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하대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비룡'

인하대학교 서포터즈 '비룡'은 여느 서포터즈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KUSF가 서포터즈를 도입하기 전부터 대학배구리그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팀을 조직한 것. 그 때문인지 서포터즈 구성원들의 서포터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르다.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라 하면 보통 '스포츠는 남자가 더 좋아하니 남학생이 더 많을 것',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체육전공생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비룡'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 서포터즈 구성 인원은 총 12명, 이 중 남학생은 2명, 체육전공생은 단 1명이다.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인하대 배구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하대 '비룡'은 그 비결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구성원을 꼽았다. 단순히 스포츠에만 사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 건축학, 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형상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룡'의 압도적인 여학생 비율은 그 강점을 100% 살려 여심을 사로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최근 배구를 비롯한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는 여심을 사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룡' 역시 여성팬들을 공략한 콘텐츠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인하대 배구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비룡'은 온·오프라인에서 백방으로 활약하며 인하대 배구부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SNS를 통해 인하대 배구부 선수들

경기대, 인하대 눈에 띄는 관중 증가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의 활약에 힘입어 대학배구 리그는 홈경기 기준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2013년 80명에서 2014년 240명으로 200% 가량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대는 평균 관중 수가 2013년 50명에서 2014년 210명으로 320% 가량 증가했고, 인하대는 평균 관중 수 2013년 40명에서 2014년 370명으로 무려 825%나 증가했다.

대학배구리그 스폰서십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대학배구리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의 부지런한 활동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다양한 대학관계자의 관심을 이끄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배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학생 선수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포터즈에 애정 어린 감사 인사를 표하는 등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간 유대감 형성 효과도 거뒀다. 나아가 서포터즈의 활약을 통해 대학배구리그 스폰서십 유치 등 대학스포츠 수익 사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흥미롭게 소개하기도 하고, 경기별 하이라이트 영상, 경기 사진 등을 게재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경기별 하이라이트 영상은 인하대 서포터즈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다. 경기별로 선수들의 짜릿한 득점 장면, 멋진 수비 장면 등을 모아 만들어 낸 하이라이트 영상은 경기를 관람한 팬들에게도,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된다. 이와 함께 '비룡'은 위트 있고 센스 넘치는 선수 인터뷰로도 유명하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편집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선수 인터뷰에 재미를 불어넣어 팬들로 하여금 선수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비룡'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재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 페이지 중 '좋아요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역시 눈에 띄게 활발하다. '인하대 배구부 미남 선수 투표' 이벤트를 통해 교내 학우들에게 배구부를 알리는가 하면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배구 경기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서포터즈가 손수 만든 간식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 준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된 간식 이벤트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인하대 배구부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KUSF 사무처 회의실에서 2014년 6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강신욱 KUSF 집행위원장, 김성태 KUSF 사무처장과 사업기획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대행사 IB월드와이드 관계자 등 실무진을 비롯하여 대학농구리그 서포터즈와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 대표 학생 17명과 대학축구리그 홍보에 자발적으로 나서 활동 중인 학생 7명이 참석했다.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 학생들은 대학스포츠 리그 현장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좋았던 점과 부족했던 점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건의사항을 KUSF 측에 전달했다. 특히 서포터즈에 대한 각 대학의 인식 부족을 언급하며 원활한 홍보 활동을 위해 대학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스포츠 리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다양한 대학스포츠 리그 발전 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대학스포츠의 주체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학생들은 전 종목 리그에 서포터즈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학별로 전 종목 리그 통합 서포터즈가 활동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활동 검토 대상인 대학축구리그(이하 U리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현재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체적으로 축구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은 "U리그에 대한 학생들 인식이 매우 미비하다"며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시에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서포터즈의 경험담을 들으며 U리그 서포터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띤 토론을 벌인 각 리그 서포터즈 대표 학생들은 "대학스포츠를 주관하는 KUSF와 대학스포츠의 주체인 서포터즈 간의 대화 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 리그 서포터즈가 한 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꾸준히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몇몇 학생들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자체적으로 모여 대학스포츠 리그 서포터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갖는 등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생은 대학스포츠의 가장 큰 주체인 만큼 KUSF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 활동 마무리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가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 기자단 제6기는 13인 전원 활동을 수료했으며, 제6기의 우수 기자로는 서다영(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이규호(성균관대 사회학과), 임예람(숙명여대 체육교육과) 학생기자가 선발되었다.

서다영 학생기자는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대학스포츠 현장을 생동감있게 담아냈고, 제5기 활동 시 사진기자로 활동하다 제6기 활동 연장과 더불어 취재기자로 변신한 임예람 학생기자는 대학배구와 대학아이스하키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한편, 이규호 학생기자는 2014 UnivExpo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학생대표로 활

동하는 등 기자단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기자로 선발되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 우수 기자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 활동 시작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가 활동을 시작했다. 총 14인으로 구성된 제7기는 7월 8일 제1차 기자단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자단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 클럽피쉬리조트에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4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와 제6기 명예기자 등 16명의 대학생 기자단과 KUSF 사업기획팀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날 레저스포츠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진 기자단은 이튿날 8월 기획회의를 통해 기획기사 아이디어를 토의했다. 또한, 대학스포츠 블로그 3주년을 맞아 3주년 이벤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7기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UnivExpo 참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이 '2014 유니브엑스포(UnivExpo) 서울'에 참가해 대학스포츠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유니브엑스포는 대학생 대상 기업 프로그램과 같은 대외활동과 강연, 공연, 이벤트뿐만 아니라 취업 컨설팅, 멘토링, 인맥형성 등 대학생들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대학생생활 박람회다.

2014 유니브엑스포 서울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하쿠호도제일과 대학내일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약 100여 개의 대학동아리, 정부, NGO,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 대학캠퍼스에서 개최되던 관행을 깨고 '젊음의 거리'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되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게 대학스포츠를 홍보할 기회를 가졌다.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유니브엑스포는 봉사존, 예술·문화존, 글로벌존, 경제존, 미디어존, 여행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은 미디어존의 1번 부스를 배정받아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2012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를 결정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행사를 기획했고, 확정된 날짜도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로 확정되어 어느 때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파로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참가 취소를 고려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날짜가 다시 확정되고 상의 끝에 기자단은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은 부스 장식을 위해 'KUSF'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을 배경으로 부스 전면에 대학농구·축구·배구리그 일정이 게재된 공식포스터를 배치함과 동시에 기자단 프레스 배너를 설치했다. 또한 부스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와 대학배구리그 가이드북을 증정했다.

기본적인 홍보방안과 함께 방문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했다. 대학스포츠 학생선수들이 직접 입을 유니폼을 전시하면서 프레스 배너 앞에서 즉석으로 유니폼 착용사진을 남겨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여름 날씨를 겨냥해 다양한 대학스포츠 소식을 알려주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하며 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밖에 지난해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각 리그 우승팀 예측'과 학생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북을 통해 평소에 대학스포츠 팬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대학리그 팀과 대학선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많은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는 '꽃보다 선수'라는 별칭으로 진행된 대학스포츠 최고의 미남선수를 뽑는 투표였다.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에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선수들을 앞에 두고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특히 많은 여성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어 한 때 줄을 서서 투표를 하기 위해 스티커를 손에 쥐고 기다릴 만큼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행사 일정이 자주 변경되어 촉박한 시간 속에 행사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 속에 방문객들이 부스 출입을 꺼리는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대학스포츠를 향한 열정을 품은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자단 6기 학생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틀간 부스를 운영했다. 비록 지난해처럼 'UnivExpo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기자단 학생들이 더욱 단합되고 대학스포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 뜻 깊은 행사였다.

이번 유니브엑스포의 학생대표를 맡아 기자단을 이끌었던 이규호 학생기자는 "지난번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다양한 대학스포츠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스포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밖에서도 대학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재밌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선수촌 입촌 대학 학생선수 학사지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학생선수의 학업 관리와 학사 지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학기 중 지방 토너먼트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문제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의 경우, 수시로 또는 장기로 차출되어 선수촌 내에 머물며 훈련함에 따라 지리적 문제 등으로 학습권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요원한 이와 같은 환경은 우수한 경기력을 갖춘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의 학업 능력과 사회 적응력 저하 등을 초래해 은퇴 후 진로 개척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올림픽 Top10’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이다. 엘리트 스포츠 강국 유지와 엘리트스포츠를 이끄는 국가대표 선수의 은퇴 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KUSF는 대한체육회와 손잡고 태릉·진천선수촌 입촌 대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KUSF 학사운영위원회는 선수촌 강의 교육과정을 개발, 편성한 뒤 선수촌 강의 강사진 선발, 파견을 진행했다. 태릉·진천 선수촌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수강 학생선수 모집, 관리를 맡아 강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1학기 강의 시범 운영 결과, 태릉·진천 선수촌에서 운동생리학, 리더십, 스포츠영어1의 각 3개 강의가 개설돼 주1회씩 총 86회의 강의를 진행됐다. 태릉에서는 281명, 진천에서는 138명, 총 419명의 학생선수가 참여했다. 대학부 외 일반부, 고등부 선수도 청강 형태로 수업에 참여했다.

2014년도 1학기 강의 현황

장소	운동생리학	리더십	스포츠영어1
태릉선수촌	조인호 (한국체대)	윤영길 (한국체대)	지인영 (한국체대)
진천선수촌	정진욱 (체육과학연구원)	박종진 (충북대)	이호진 (한국과학기술대)



한편, KUSF는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가 선수촌 개설 강의 수강 후 소속대학 유사 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수촌 개설 강의 학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각 대학 학사관리 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각 대학의 선수촌 개설 강의 학점 연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선수촌 개설 강의 학점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바 있다. KUSF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선수촌 개설 강의 학점 연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학기 시범 강의 종강 후 2/3 이상 출석했고 소속 대학에 유사 강의 수강신청을 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소속 대학 해당 강의 담당 교수에 학점 인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학점 인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선수촌 개설 강의 담당 강사의 추천을 받아 강의에 성실하게 참여한 우수 수강 학생선수를 선정, 시상했다.

2014년도 1학기 강의 우수 수강 학생선수

장소	운동생리학	리더십	스포츠영어1
태릉선수촌	박다희(역도, 용인대)	이경은(체조, 한체대)	김형규(복싱, 한체대) 김옥진(우슈, 한체대)
진천선수촌	고은지(다이빙, 위덕대)	김덕훈(사격, 중앙대)	김현준(사격, 한체대)

1학기 시범 운영을 마친 선수촌 강의는 2학기 정식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2학기에는 운동영양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영어2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 포기 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진로 개척 지원을 통해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엘리트스포츠의 정점인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초중고 학원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태극권 국가대표 김 옥 진

올해 3월부터 대한체육회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에서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시범운영 되었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첫 학기 강의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선수를 만나 보았다. 바로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태극권 국가대표 김옥진이다.

학교보다 먼저 우수와 만나다

우수는 쿵푸를 스포츠화한 무술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김옥진은 우수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우수와 만났다. 초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나간 전국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 중학교 2학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이전에는 우수가 마냥 즐겁기만 했다면 태극마크를 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태극마크를 얻은 대신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있었다. 김옥진은 우수가 비인기 종목인 탓에 체육 중·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녔다.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교생활을 했다는 점이 좋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을 빠져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운동부로 소속되어있지 않다보니 이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선수를 전

문적으로 육성하는 체육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학에 와서는 학교의 배려를 받아 학교생활 중에도 합숙과 훈련을 원활히 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숙, 훈련에 갈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합숙 중에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듣고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책상에 앉은 선수들

선수촌 합숙은 보통 시합 두 달 전부터 시작된다. 5시 50분에 올리는 알람으로 시작되는 선수촌의 하루는 훈련의 연속이다. 학기 중에는 새벽운동이 끝나고 난 뒤, 선수촌으로 오는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오전 수업을 받으러 간다. 그러나 이마저도 훈련을 하다보면 빠질 때가 많아 학교보다 선수촌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수업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업을 빠지기 때문에 과제와 시험에 최선을 다한다는 김옥진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친구들

덕분이라고 말한다. “친구들이 과제나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책도 보여주며 도와준 덕분에 고비 고비를 넘겨 졸업반까지 오게 됐어요. 친구들 없었으면 절대 못 했을 거예요”라며 그간의 고마움을 표했다. 훈련으로 지쳐 자유 시간에는 바로 잠을 청할 정도지만, 그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가요. 이런 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쩔 때는 쉬다가 억지로라도 책을 읽었어요. 비록 잠은 오고 졸음이 쏟아져도 머리는 쉼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할 정도이다. 운동만으로도 바쁜 텐데 학교 수업도 챙길뿐더러, 선수촌 강의를 듣고 우수학생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 지 망하기도 한데, 처음 이런 상을 받아서 기쁘고요. 강의가 계속해서 활성화돼서 선수들이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안 듣는 것 보다 직접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 직접 들으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 되는구나 알 수도 있고요.”

김옥진은 지난 1학기, 처음으로 진행된 선수촌 강의 중 스포츠영어1을 신청해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아무래도 요즘 영어가 많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과의 선생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업에서는 훈련 시간에 필요한 영어, 운동 종목에 관한 영어 등을 배웠다. 수업은 회화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며 수업을 회상했다. “종목별로 상황에 맞는 질문들도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참여시키려고 일일이 시키셨어요. 영어 수준이 다들 달랐는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수학생 선수로 선정된 비결을 묻자 자신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생각하다 “출석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이나 야간 훈련이 있는 날은 못 갔지만...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하면 대답 잘하기!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교에서 듣는 것과 수업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선수촌에서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운동과 학업, 모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선수촌이 약간 외곽이잖아요. 학교까지 머니까 여기서 듣는 게 훨씬 편해요.” 또한, 항상 운동하는 모습만 봐왔던 선수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새로웠고, 무엇보다 강의가 개설되면서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 선수촌 강의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묻자 “프로그램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선수들이 좀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학점을 꼭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

을 수 있었다. 지난 학기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터라 학점 연계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출석률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선수촌 강의가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면 더 많은 선수들이 수업에 참여해, 학업과 운동 모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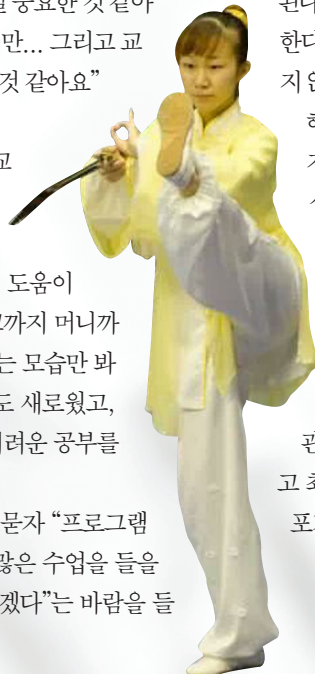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김옥진은 학생의 본분에도 충실하지만, 운동선수로서도 최선을 다 한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그렇듯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작년 한 해 휴학을 하고 직접 중국에서 우승을 배웠을 정도로 열정적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 번 대표팀에 선발되었으며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도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또, 우승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힘을 내서 메달을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다가온 아시안 게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아시안게임 후에는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후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우수 지도자가 되어 태극권을 제대로 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한다. “운동을 가르치려면, 운동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리학도 알아야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알아야, 가르치는 입장이 편하고 듣는 사람도 다르다고 느끼거든요”라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운동 뿐 아니라 공부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한다.

김옥진이 속해있는 레저스포츠학과는 비 올림픽 종목 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한다. 학생선수들에게 일반 학생들과의 경쟁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김옥진은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 계속 들어서 발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잘 해요. 그런 걸 보다보니 학점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진은 인터뷰를 마치며 학업을 포기한, 혹은 포기하려는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1학년 때부터 그러면 4학년 때까지 이어지고, 자기도 습관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고, 정말 어려우면 성의를 보이는 정도라도 해서 포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지
사진.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소희





복싱 국가대표 김형규

지난 3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수촌 내 강의를 개설했다. 2014년 1학기 시범운영으로 이뤄진 선수촌 강의의 우수학생으로 성실함과 학업 성취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들을 선정했다. 그 중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있는 복싱 국가대표 김형규(한국체대4)도 우수학생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영양1을 수강한 김형규에게 수상 소감을 묻자, “상 받기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제가 왜 받아요?’이랬죠. 처음에 감독님께서 ‘형규야 너 선수촌 강의 우수학생선수상 받는다.’ 하셨는데 순간 ‘무슨 상을 받는 거지?’하면서 의아했어요. 아마 열심히 들어서 주신 것 같아요.”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가장 남자다운 운동, 복싱

김형규는 ‘복싱을 낯설어하는 대중에게 복싱을 어떻게 소개하겠나’는 질문에 “가장 남자다운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룰은 간단해요. 많이 때리고, 많이 안 맞으면 돼요. 모두가 쉽게 배우고 접할 수 있죠. 파이팅이 넘쳐서 경기도 재밌고, 남자다움을 잘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엄청 정정당당하죠. 두 주먹과 같은 체중의 대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펼치니까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정정당당한 남자의 스포츠’라는 답변에 걸맞게 그는 큰 신장만을 이용한 소극적인 패턴의 공격스타일만을 고수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움직임을 이끌며 경기를 주도권을 쥔다. “상대에 따라서 경기 스타일을 바꾸는 편이에요.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웃복싱 스타일과 인파이터 복싱 스타일이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 아웃복싱이지만 상대 주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오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죠.” 영리한 경기운영 능력이 결집어져 ‘힘, 체력, 두뇌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선수’라는 평을 받는 김형규는 올해 7월, 차이나 오픈에서 우승을 하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2011년부터 4년 여간 국가대표 생활을 하며 노력한 결실을 볼 때가 온 것이다.

공부는 끈기와 노력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했기에 4년 중 학교에서 지낸 시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김형규가 학점을 관리하고,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선수촌에 입촌해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을 듣기 어려워져요. 오전에 학교로 가는 셔틀버스가 오긴 하지만 매 수업을 듣기는 힘들죠. 그래서 교수님께 매번 전화해서 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과제를 하는 편이에요. 교수님들도 이러한 노력을 봐주시고 학점을 주셨던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 4.2의 학점을 취득했다는 김형규는 노력과 끈기로 포기하지 않았기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자주 갈 수 없어 학점을 받는 것에도,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지만 공부의 필요성만은 절실히 느낀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공부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죠. 공부를 하고 싶어요. 주변 선수들 대부분은 공부의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두들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선배님들도 학위를 취득하세요. 대표팀 선생님들도 공부를 지속해 오신 분들이 많죠. 옳은 길을 걸어온 어른들이 선수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해주시니 확실히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요. 사실 운동을 하다보면 할 시간도 없고, 피곤해요. 하지만 한번 외국을 나가고 하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막상 배우고 싶어도 대학생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학생으로서의 갈증을 풀어준 선수촌 강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표팀 일정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김형규에게 선수촌 강의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스포츠영어를 택한 이유는 우선 영어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일단 들어는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선수들 수준에 맞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일반 대학생 분들보다 공부해온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 어렵죠. 선수들끼리 강의를 받아서 과외 받는 느낌으로 할 수 있었어요.” 훈련과 대회 일정으로 외국을 나갈 때, 항상 친해지고 싶던 해외 선수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아쉬웠다는 김형규는 선수촌 강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가끔씩 떠오르는 단어를 말문이 막힐 때 쓰죠. 예전에는 대화를 할 때 하루 종일 바디랭귀지만 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나, 같은 선수인 경우에는 서로 경기결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훨씬 의사소통이 편해졌어요.” 김형규는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복싱이



다이어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주변에서 체중감량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식이요법이 라든지,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운동선수 입장에서 가르쳐 주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운동영양학 같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한층 더 가깝게 복싱이 어떤 운동이고, 어떻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바쁜 끝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김형규는 선수촌 강의 개설 과목들이 선수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기 쉽고, 자신의 종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많은 동료들에게 권하고 싶어 했다. 그는 선수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후배들에게 학교생활 안에서 운동과 더불어 학업 또한 포기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제가 대표팀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 복싱부 주장이었어요. 저는 후배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선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업에 참여하고 학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찮게 하는 편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수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귀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선수들도 꼭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가기 어렵다고 무작정 수업을 안 듣고 피하기보다는 선수들도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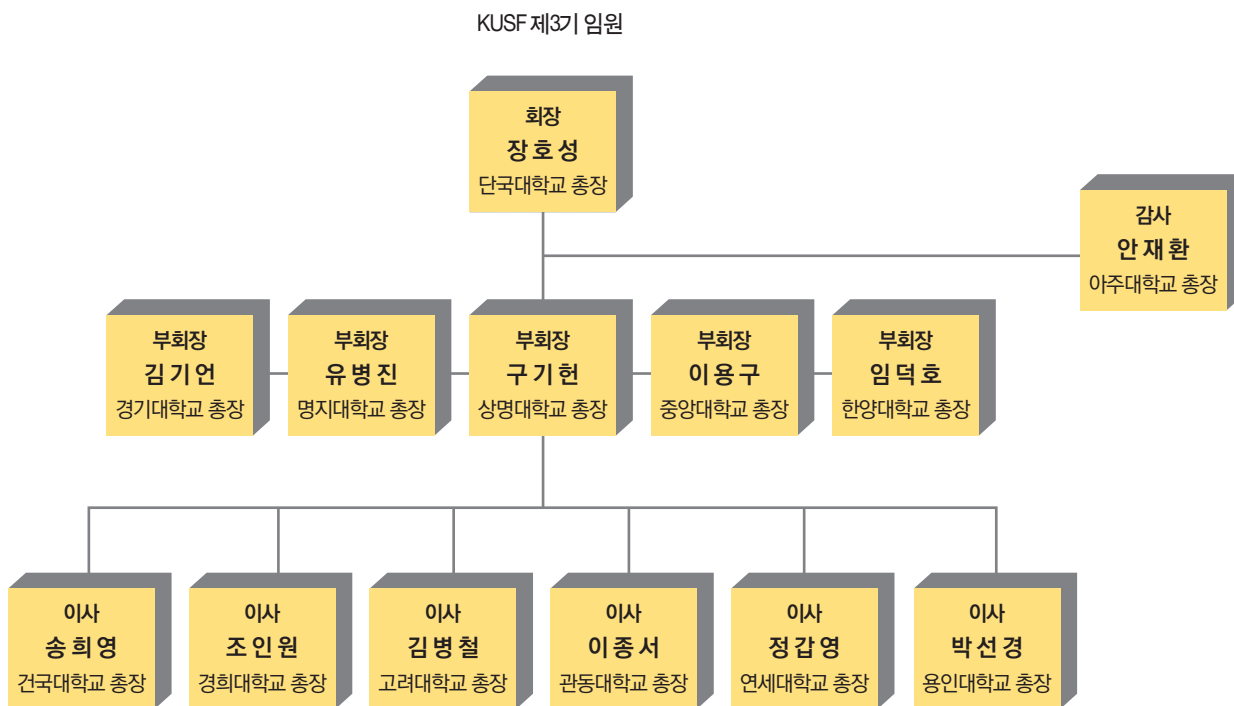
김형규의 좌우명은 ‘바쁜 끝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고 한다. 젊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최선을 다해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선수의 의지처럼 학업과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대학 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이 엿보였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국가대표의 자리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꾸준히 활약을 보인 것은 더 이상 ‘운동선수는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깬 활약이 아닌가 싶다. 선수촌 강의 등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는 만큼 아직은 생소한 ‘학업과 운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선수’ 김형규가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소희
사진.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기 임원 선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지난 7월 26일, 정관 제15조 4항에 의거하여 제3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개최하고 제3기 임원을 선출했다. KUSF 제2기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임원을 선출했으며, 부회장 5인, 이사 6인, 감사 1인 등 모두 12인을 선출했다. KUSF 제3기 임원의 임기는 2014년 7월 26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로 총 3년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신규 집행위원 임명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호성 회장은 2014년 5월 12일, KUSF 사무처에서 열린 2014년 제5차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신규 집행위원을 위촉식을 거행했다. 여인성 연세대학교 체육위원장(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정재용 한국방송공사 기자(스포츠제작부 차장)가 신규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한편, 전국대학교체육부(과)장협의회 장봉군 신임 회장이 7월 22일자로 신규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규 집행위원



여인성 교수



정재용 기자

























장봉군 회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신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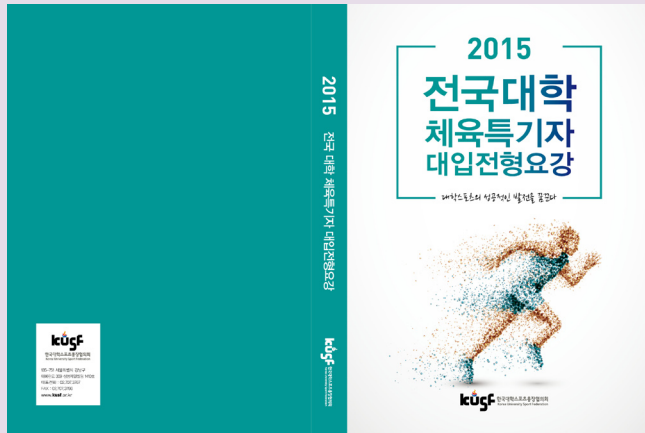
32개 대학 신규 가입, 52개 대학에서 83개 대학으로 확대

전국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31개 대학 총장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 31개 대학은 KUSF가 실시한 대학운동부(중점육성종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KUSF 회원대학은 기존 52개 대학에서 2014년 8월 현재 83개 대학으로 대폭 늘었다. KUSF의 외연이 확대된 만큼 KUSF를 중심으로 한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USF 회원대학
(2014. 8. 현재)

										
가천대학교	강원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강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남대학교	서라벌대학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한대학교
										
송호대학교	순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2015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발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2015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을 발간했다. 「2015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은 8월 중순 발간되었으며, 운동부를 육성하는 전국 1,000개 고등학교에 배포되었다. 전국 91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및 전국 90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대상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별 대입전형요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요강 필수 용어 해설, 대학별 대입전형요강 일람표 등을 수록했다.

한편, KUSF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에게 유용한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KUSF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대입전형요강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대입전형요강을 진단·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 개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TV 시청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개편 작업은 7월 3일에 완료되어 현재 원활히 서비스 중이다. 바뀐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에서는 대학농구·배구리그 생중계, VOD, 스페셜 영상, 종목별 대학리그 기사,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사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VOD 섹션에는 검색창과 종목별·시즌별 분류 기준을 뒤 올 시즌 중계 영상은 물론, 이제는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의 대학 시절 경기와 인터뷰 영상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새 홈페이지의 주소는 대학스포츠TV 시청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www.kusf.tv로 변경했으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주소로 접속 가능하다. 이처럼 접근과 이용이 편리해진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더 많은 대학스포츠팬들이 대학스포츠TV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대학운동부 중점육성종목

지원금 교부

대학운동부 중점육성종목 지원금 교부 대상으로 선정된 151개 대학운동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대학운동부별로 약 800만 원 ~ 3,000만 원까지 지원금이 교부되며, 내년 1월까지 훈련경비,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개최

2014 KUSF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가 개최된다.

대학생은 대학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스포츠를 소비하며, 대학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현재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회는 교내 대회 혹은 단기 토너먼트 대회가 주를 이루며, 대학생이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대회는 없었다. 이에 KUSF는 대학스포츠 동아리 교내 리그 활성화와 전국적인 대학스포츠 동아리 리그 붐을 조성하고자 대학스포츠 동아리 U리그를 기획했다.

2014 KUSF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농구동아리 총 48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4개 지구로 나누어 9월부터 11월까지 총 11주간 지구별 리그전을 펼친다. 지구별 상위 4개 팀이 16강 최강전에 진출, 대학농구동아리 최강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 대회와 달리 4개 지구 거점 대학의 대학캠퍼스 내에서 약 3달 간 장기간 펼쳐진다. 특히 4개 지구 거점 대학 소속 대학농구동아리 대학생이 기획운영단으로서 대회 주체가 되어 지구별 리그의 기획, 운영, 홍보·마케팅 등 대회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KUSF는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이를 롤모델로 삼아 앞으로 대학생이 즐기는 축구, 야구 등으로 대학스포츠 동아리 U리그의 종목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 대학생 참여 대학스포츠 활동 강화로 대학스포츠 붐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국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학스포츠 동아리 U리그로 그 규모를 확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시장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아시아대학스포츠챔피언십

선수단 파견

KUSF는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아시아대학스포츠챔피언십에 대학 학생선수를 파견한다. 이번 아시아대학스포츠챔피언십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리며, KUSF는 제3회 아시아대학비치발리볼챔피언십, 제2회 아시아골프챔피언십에 대학 학생선수 참가를 지원한다. 비치발리볼은 단장 1명, 지도자 1명, 선수 4명(남 2명, 여 2명) 총 6명이 참가하며, 골프는 단장 1명, 지도자 2명, 선수 7명(남 4명, 여 3명) 총 10명이 참가한다.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 조사 실시

KUSF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대학운동부 운영 대학이며,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KUSF의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주관한다.

대학운동부

지도자 교육 실시

대학운동부 지도자 워크숍이 열린다. KUSF는 회원대학 대학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대학운동부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도자 소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KUSF는 2011년부터 축구, 농구, 배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전 종목 지도자로 넓혀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 지도자,

우수 홍보대학 발굴·시상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모범이 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에 기여한 우수 지도자, 대학스포츠 리그 활성화에 힘쓴 우수 홍보대학을 발굴·시상한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단국대 장호성 총장, 몽골 북극성 훈장 수훈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6월 16일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Gonchigdorj 몽골 국회부의장, Ganbold Baasanjav 주한몽골대사, 김홍진 한국몽골학회 회장, 신상균 외교부 사무관 등의 한국과 몽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정부로부터 몽골 최고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훈장은 '몽골어-한국어 대사전', '동북아 유목문화 대사전'의 발간을 주도하고 매년 몽골에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의료봉사단과 학생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과 몽골의 교류를 활성화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하게 되었다.

한편, 장호성 총장은 5월 26일 독일 SAP본사에서 SAP의 COO Mr. Gerhard Oswald, 경기도 남충희 경제부지사와 같이 단국대-SAP-경기도 간의 국제 산관학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SAP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재에 한하여 500명의 정규직 채용과 500명의 인턴 채용을 약속하였고 단국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명지대,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원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3월 11일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대회의실에서 화천군(정갑철 군수)과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명지대와 화천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

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으로 그의 후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에티오피아 인재육성 모델 개발에도 힘쓰기로 합의했다. 나가서 실현하는 세계화와 들어오는 국제화를 통해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명지대의 이번 협약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참전용사 후손 교육 지원(2006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사는 고려인 후손에게도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병진 총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대한 후원의 일환으로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직계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통해 명지대 학생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의 우정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대,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사업 진행



경기대는 21개 대학이 선정된 2014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1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되어 창업지원단을 꾸려 창업선도대학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업선도대

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대학창업교육 패키지 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창업관련 사업의 성공률이 높았던 점과 창업보육센터를 잘 관리해 항상 우수 평가를 받는 등 각종 노력들이 지역의 창업 거점으로 경기대가 선정되는데 기반이 되었다.

이번 사업은 3년 후 평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경기대는 1차 년도에 20억 9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금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 인프라지원 사업, 창업 거점사업 등으로 나누어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Change for Jump 창업역량 강화캠프가 지난 7월 2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대에서 개최되었다. 김기연 경기대 총장은 경기권역에서 36개의 창업동아리가 참가하여 창업아이템 실용화 보완 등 팀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개 동아리에 총장상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경기대는 대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관동대, 강원FC와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이종서 관동대 총장은 4월 3일 관동대학교 50주년 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강원FC 임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과 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산학발전과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관동대는 강원FC와 현장실습 및 단기 인턴십 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 스포츠 유관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서 관동대 총장은 4월 24일 청송관 대강당에서 “개교 제 5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관동대는 1954년 이종명 초대 이사장에 의해 설립되어 기독교의 진리라는 교육이념 아래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며, 현재까지 약 5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다. 개교 59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노력한 교수 및 직원 23명에게 근속표창 수여가 이루어졌다.

상명대학교, 경영혁신협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



구기현 상명대 총장은 5월 28일 신설동 경영혁신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박철구)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상명대학교 학생의 기업현장실습과 취업지원, 학술정보교류 등 산학협력을 통해 양성한 우수 전문 인력을 메인비즈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상명대학교 출신의 학생들과 협회 회원사간 잡(Job) 매칭을 실시하는 한편 메인비즈 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동연구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선문대, 제45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선문대는 8월 1일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에서 강호 인천대를 2-1로 꺾고 2002년에 이후 12년



만에 대학축구의 정상에 섰다.

방학을 맞아 일본 대학 방문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황선조 선문대 총장은 선문대가 결승에 올랐다는 보고를 받고, 귀국일정을 하루 앞당겨 1일 새벽에 귀국했다. 공항에서 바로 태백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친 후 선수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황선조 총장은 “우승을 위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우승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익대, 버추얼모션(주)로부터 190억원 상당의 공학용 소프트웨어 DAFUL 기증받아



임해철 홍익대 총장은 지난 4월 15일 버추얼모션(주)(대표 배대성)으로부터 기계 동역학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190억 원 상당의 공학용 소프트웨어 DAFUL 60카피 기증식을 가졌다.

DAFUL 소프트웨어는 다물체 동역학해석 및 유연체 응력해석(구조역학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공학(CAE)용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건설 중장비, 전자기기 등의 각종 기계시스템 설계 시 해석에 필요한 도구이다. 특히, 기존의 유한요소(FEM) 메쉬(Mesh) 생성작업 없이 CAD 모델로부터 직접 해석모델을 구성하여 구조 동역학 해석 수행이 가능한 메쉬프리(Meshfree)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홍익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 CAD실 및 전공 관련 대학원 연구실에 설치된 DAFUL은 자동차 및 무한궤도 중장비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시스템의 다물체 구조 동역학 및 구조역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410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